

#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      |        |      |                          |
|------|--------|------|--------------------------|
| 이름   | 이승*    | 학번   |                          |
| 파견국가 | 캐나다    | 파견도시 | 밴쿠버                      |
| 파견대학 | 랑가라컬리지 | 기간   | 2016. 8. 7(일) ~ 8. 27(토) |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파견대학 | <p>Langara college는 100 West 49th street에 위치해있으며 Langara 49th 스카이트레인 역에서 내려서 조금만 걸어가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많은 건물을 이용하지 않아서 학교 전체를 사용하기 보다는 한 교실에서만 주로 생활하므로 다른 건물을 이용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담당 선생님과 함께 학교를 둘러보는 activity가 있으므로 이 때를 이용해 학교의 시설들을 알아놓으면 이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book store, library, clinic, cafeteria등이 있으며, 특히 저희가 점심을 먹는 곳인 cafeteria에는 팀홀튼과 샌드위치와 다른 음식들을 파는 곳이 몇 개있습니다. 학교 내에 스시와 한국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며 라이브러리에는 스타벅스가 있습니다.</p> <p>학교 시설은 공부하는데 불편한 점 없이 괜찮았습니다. 학기 중이 아니어서 생각보다 조용하고 쾌적했습니다.</p>                         |
| 수업   | <p>첫 시간에 프로그램을 신청한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모여 듣기 시험을 통해 반을 나눈 후 각 반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데려가 그 반에서 나머지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있었던 반의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영어를 잘 못하시는 것을 감안하여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시고 유쾌하셔서 수업이 재밌었습니다. 과제의 경우는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어려운 것은 없었고 수업은 9am에 시작해서 보통 3pm에 끝납니다. 일주일에 한번은 1pm에 끝나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여러 activity를 진행 하므로 수업 시간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길진 않습니다. 수업은 캐나다, 밴쿠버를 알아가는 시간과 여러 문화권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 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았고 쓰기는 많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저널을 작성한 후 선생님께서 첨삭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p> <p>크게 스트레스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p> |

|          |  |
|----------|--|
| Activity | <p>1주일에 한 번씩은 야외 activity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했던 것들은 Kayaking, Discover Vancouver, Aquarium, Vancouver Museum, Whistler trip이 있었습니다. kayaking은 한 반씩 버스를 타고 deep cove라는 곳을 가서 2인용과 1인용 카약을 타고 1~2시간 정도 카약을 탑니다. 탈줄 몰라도 간단히 설명을 해줘 어렵지 않게 탈 수 있습니다. Discover vancouver는 instructor 한명과 여러 밴쿠버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다음 시간에 찍었던 사진들을 이용하여 포스터를 작성합니다. 제가 있었던 반의 경우 포스터를 이용해 간략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Aquarium은 스탠리 파크 안에 있는데 밴쿠버 주위에서 발견되는 해양 동물들과 그 밖의 여러 가지 동물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Vancouver museum에서는 밴쿠버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데 신기한 물건들을 많이 구경 할 수 있습니다. 여러 activity중 가장 재밌었던 Whistler trip은 곤돌라와 리프트를 이용해 산꼭대기를 가는데 꼭대기에서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p> |
|----------|--|

### 3. 생활전반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날씨 | <p>현지 기후 및 유의점<br/>여름 기후는 습하지 않고 크게 덥지는 않지만 햇볕이 너무 뜨거워 피부가 많이 탈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외출 할 때 선크림을 발라야 되므로 챙겨주세요. 그리고 가끔씩 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크게 내린 경우는 없으므로 가서 작은 우산 하나 샀습니다. 저녁에는 조금 추우므로 얇은 겹옷을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
| 안전 | <p>현지 안전 상황<br/>다운타운에 homeless가 많아 조금 위험하고 가끔 스카이 트레인에 이상한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나타운 근처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어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안전하게 지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
| 숙소 | <p>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br/>홈스테이 시설은 가족들마다 다를 수 있어 약간의 운이 따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잘 챙겨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친구와 홈스테이를 같이 해서 심심하지 않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규칙의 경우 심하지 않고 통금 시간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샤워 시간은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것이 좋고 밥을 밖에서 먹는 일이 생긴다면 몇 시간 먼저 홈스테이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 게 좋습니다.</p> |

|    |   |
|----|---|
| 식사 | <p>학교식당( ) 홈스테이 ( v ) 외부식당 ( v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침은 홈스테이 가족들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해주셨지만 다른 친구들은 자기들이 해먹거나 시리얼로 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점심은 매일 샌드위치를 싸주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저녁의 경우 친구들과 밖에서 먹는 일이 많았지만 주로 외식비가 한국보다 비싸서 별일 없으면 집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식을 할 경우 팁을 내야 하므로 자신이 먹은 밥값의 10%정도를 내면 됩니다.</p> |
| 교통 |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저는 41번가에 살아서 학교까지 가는데 버스를 1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main street에서 49번으로 갈아타 학교 버스스탑에서 내려 조금 걸어가면 됩니다. 아니면 랑가라 스카이트레인역에서 내려 걸어 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랑가라 스테이션에서 캐나다 라인을 타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 항목              | 비용        |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개인부담금(항공료 외 기타) | 1,711,200 | 출국 전 사전 납부     |
| 유심              | \$55      |                |
| 외식비             | \$190     |                |
| 기념품             | \$170     |                |
| 나에게 주는 선물       | \$60      |                |
| 등등              |           |                |
| 합계              |           |                |

#### 5. 출국 전 준비사항

|   |
|---|
| <p>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p> <p>수건을 챙겨 가져야 합니다. 저는 홈스테이에서 수건을 한 장만 줬습니다. 여름에는 햇빛이 강해 선크림을 꼭 챙겨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에는 조금 추울 수 있으므로 얇은 겔옷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놀러가고 싶은 곳을 미리 찾아 놓아 계획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심칩은 현지에서 살 수 있지만 한국에서 해외용 유심칩을 사는 게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p> |
|---|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영어 실력을 늘리기에 3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영어를 좀 더 편하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3주 동안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생활화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는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밴쿠버를 다녀 온 후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고 경험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밴쿠버에서 만난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를 하며 같이 놀러 다니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방학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값진 시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향상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큰 스피킹을 연습할 수 있었고 영어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 7. 사진보고서 (6장 이상으로 사진 크기에 맞추어 표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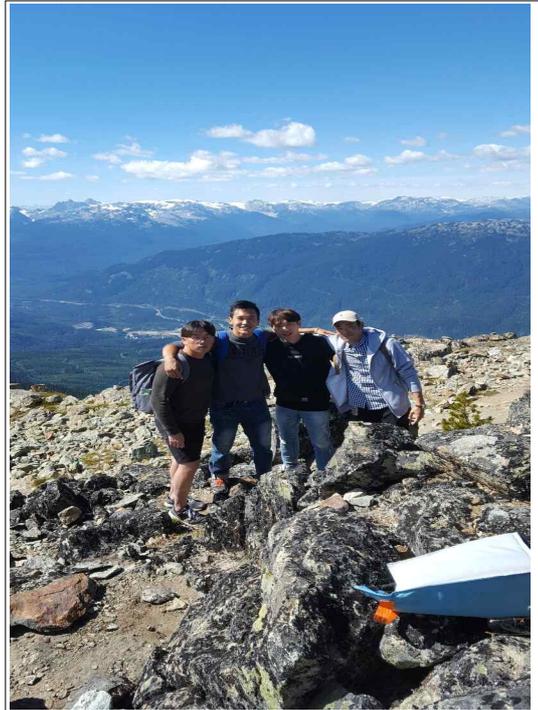
Capilano



Students



Kayaking



Whistler



Class



English Bay